

소공동체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0년 7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www.cathms.or.kr

복음 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
눠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와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주간	활동예정사항	나눔사항
연중 제14주간		
연중 제15주간		
연중 제16주간		
연중 제17주간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3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사랑의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 주님, 지금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보물



아름다운 자연



진주



수단의 천사 고(故) 이태석 신부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13장 44절-4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어느 날 지식과 성덕을 겸비하신 노(老)사제 한 분께서 이제 갓 서품을 받은 신부님들에게 말씀하셨다.

“사제 서품을 받으면 그 즉시 병(病)이 하나 걸리는데, 새 신부님들께서는 그 병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이겨 내려고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새 신부님들은 무슨 병인가 싶어 서로를 쳐다보다, 신부님께 물었다. “어떤 병에 걸리나요?” 노(老)사제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고서는 새 신부님들에게 대답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의 말이 잘 안 들리는 병에 걸리지요. 사제로 서품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잘 들리던 것들이 사제가 되고 나면 못 듣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하느님을 향해서 각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제로 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자세겠지요.”

진행자

- 나는 주위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눈과 귀와 마음을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 나는 하느님께서 주신 강과 산 그리고 바다와 꽃과 같은 세상 창조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타토의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26번 “이끌어 주소서” 1,3절을 부릅니다.

‘주님의 기도’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진행합니다.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 주세요.

† 마태오 복음서 6장 9-15절

주님의 기도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10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1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13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14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② 함께 소리 내어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바쳐봅시다.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하지 마라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에 적혀 있는 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하지 마라!

넌 세상일에만 빠져 살고 있다!

“우리”라는 말 하지 마라!

넌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고 있다!

“아버지”라는 말 하지 마라!

넌 나의 아들, 딸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는 말 하지 마라!

넌 네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는 말 하지 마라!

넌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살고 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말 하지 마라!

넌 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살고 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말 하지 마라!

넌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며 살고 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말 하지 마라!

넌 아직도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으며 살고 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말 하지 마라!

넌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며 살고 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 하지 마라!

넌 악을 행하고도 앙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며 살고 있다!

“아멘”이란 말 하지 마라!

넌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며 살고 있다!



생각 나누기

- ① 평소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나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성찰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② '주님의 기도'를 진정 '주님'의 기도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발표해 봅시다.
- ③ 동그랗게 어깨동무를 하고 다시 한 번 '주님의 기도'를 바쳐봅시다.

❖ 함께 실천해요!

다음의 내용을 다함께 살펴보세요.

세상일에만 빠져 살지 맙시다.
 나 혼자만 생각하며 살지 맙시다.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살아갑시다.
 하느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살지 맙시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찾아다니며 살아갑시다.
 나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시다.
 진정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살아갑시다.

❖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논의가 필요한 일들, 가족 친지들의 생일, 축일 소식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족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자녀에 대한 훈계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소공동체 역할배분 1

소공동체는 ‘작은 교회’이자 ‘함께 참여하는 교회’로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공동체에서 반장이나 서기에게만 많은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소공동체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역할을 배분하면 좋습니다.

☞ 반장, 서기, 복음나누기 진행 담당, 교육담당, 선교담당,
봉사담당, 전례 및 친교담당, 회계담당

이때 역할배분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호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담당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의 역할

- ① 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의 연락망을 가동해, 모임 장소와 시간, 준비물 등을 공지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합니다.
- ② 모임 공백기 동안 구역·반, 넓게는 본당의 특이 사항이나, 알림사항이 있으면 메모해둡니다.
- ③ 서기에게 협조를 구해 지난 모임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둡니다.
- ④ 지난 모임에 계획한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를 미리 정리해둡니다.
- ⑤ 소공동체 모임 진행자 및 각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역할을 숙지하도록 권고합니다.
- ⑥ 복음나누기 7단계 평가서를 준비하고, 그 내용을 미리 읽어둡니다.
- ⑦ 모임 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중재역할을 합니다(예를 들어, 진행자가 복음나누기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하거나,

한 개인이 나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기타 소공동체 모임 성격에 너무 어긋나는 몸짓 혹은 기도를 요구할 때 등).

- ⑧ 소공동체 모임과 복음나누기 7단계를 위한 전체적인 준비를 점검합니다.

서기의 역할

- ① ‘소공동체 모임 기록지’를 모임 전에 미리 챙기고 지난 모임 때 작성한 회의록을 검토합니다.
- ② 모임 전 반장과 진행자에게 지난 모임에 작성한 회의록을 1부씩 복사해 주어 미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른 구성원들도 열람을 원할 경우 숫자만큼 복사해 나누어 줍니다.
- ③ 모임 당시 회의록을 꼼꼼히 작성합니다.
- ④ 나눔을 기록할 때는 가능한 무기명으로 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지극히 사적이고 비밀적인 나눔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 기록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임이 끝나면 회의록을 반장에게 제출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 ⑥ 회의록이 소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타인(타 모임 신자 혹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들 등)에 의해 아무렇게나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인내의 열매

이정원 소피아(창원 가음동본당 구역장)

저희 본당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구역이 몇 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역과 소공동체반을 좀 더 세밀히 나누는 과정에서 구역장과 소공동체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자고 격려하셨고, 소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실천하셨습니다. 구역 전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소공동체 모임은 반별로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하고 한 주일은 봉사활동 또는 성당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행, 체육대회, 야외행사, 피정 등을 마련하여 구역원들 간의 사랑과 친교를 점점 이루었습니다. 본당 차원에서는 구역별 연도대회, 구역별 본당의 날 친선 대회를 열었고 주일 미사 후 차 봉사, 미사안내, 독서들을 구역 차원에서 두 주일 동안 참여하면서 본당 전체가 함께 어울리는 소공동체 모임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가음두산'이라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여느 구역과는 달리, 한 공동체 전체가 철거지역으로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았고 주로 소형 아파트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서 관리하기가 무척 힘든 곳이었습니다. 기존의 구역장님이 이사 가시는 통에 지금 구역장님이 터줏대감이라는 이유로 구역장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덜컥 구역장이 되어 봉사자 입장에서 구역을 살펴보니 눈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켜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른 구역보다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발전이 없어 보이는 이 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마음을 졸여야 했고 구역장 모임이나 본당 행사를 준비하면서는 소외감까지 들 지경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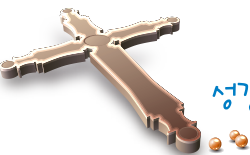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 구역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철거 지역에 교적부를 들고 다녀보니 대부분의 신자들은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여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냉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들을 성당에 다시 오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당장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빈

첸시오회에 무작정 가입하여 이 구역의 어려운 점을 알리고 회원과 구역원이 합심하여 쌀, 라면, 반찬거리, 난방 연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활동한 결과 냉담 가정들이 돌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소공동체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가 서서히 철거되기 시작하여 다른 구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에도 직접 찾아가 기도해 드리고 그 구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띠엄띠엄 흠어져 있는 작은 아파트가 많았던 터라 주로 젊은 부부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기를 키우느라 주일 미사를 한 번씩 빠지다가 결국 냉담하게 되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방문하여 아이들도 돌봐주고 가정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자모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토요일마다 어린이를 위하여 간식 봉사하며 또래 주부들과 잘 어울리고 있으며 젊은 부부들은 자연스럽게 소공동체 모임과 구역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깥 외출을 전혀 하지 않던 우울증 자매님께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전화방문하여 레지오에도 입단하기를 권유하고 자매님들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그 가정에서 소공동체 모임도 할 정도로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발품을 팔아가며 동네를 다니던 중 이웃 노총각이 외롭게 부친과 살고 있으며 종교를 갖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리반에 초대, 교리 공부 끝에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세 후 얼마 되지 않아 부친께서 갑자기 별세하시자 청년은 심한 충격으로 얼마 동안 성당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정을 듣고 퇴근 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구역 행사 때 봉사활동을 부탁하며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일미사도 꼭 지키고 소공동체 모임도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을 되돌아보면 너무 산만하고 하기 힘들 것 같은 이 구역이 조금씩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곤 할 때마다 구역 한 분 한 분이 합심하여 하느님의 뜻을 잘 따랐던 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실천하고 친교를 이루어 나가는 구역들이 모인 기쁨의 분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천주교 성경과 개신교 성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목국

가끔 개신교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도 괜찮은지 묻는 신자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답을 한다면 개신교 성경을 읽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용어상의 차이가 있기에 천주교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을 것이며, 또한 천주교와 개신교 성경의 차이점을 알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몇 권의 낱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견해가 다릅니다. 즉 신약성경이 27권이라는 데에는 서로 이견이 없지만, 구약성경에서는 권수의 차이가 납니다. 가톨릭에서는 46권을 받아들이는데, 개신교에서는 이보다 7권이 부족한 39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성경은 신·구약 총 73권인 반면 개신교는 신·구약 총 66권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히브리 구약성경을 그 당시 공용어로 사용되던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기원 전 8세기 후반부터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토인 팔레스티나를 떠나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들은 북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지방 등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디아스포라)를 이루며 모여 살게 되는데 그곳은 그리스어를 일상용어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차츰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보다는 그리스어에 익숙하게 되었고, 시간이 가면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원전 3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이때 39권으로 된 히브리어 성경을 단순히 그리스어로 옮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46권으로 편찬하게 됩니다. 이 최초의 번역본 성경을 ‘70인역(Septuaginta)’ 성경이라 부릅니다.

이때 새로 첨가된 성경은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기 상·하권,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7권과 에스테르기 일부와 다니엘서의 일부였습니다. 이 책들에 대해 개신교에서는 중요한 책이기는 하나 후에 첨가된 것이기에 성경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천주교에서는 이를 그대로 성경으로 받아들여 권수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이 책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사도들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 책들이 포함된 46권짜리 그리스 성경을 정경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후에 첨가된 이 책들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개신교가 이 책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제2경전이라는 이름으로 구약성경 뒤편에 따로 분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주교가 독자적으로 번역한 새 성경에서는 이 책들 역시 똑같은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아무런 구분 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필제(崔必悌 · 베드로)

- 공적신의 지킨 순교자 -

김길수 · 사도요한(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서울의 중인 출신으로 자를 자순(子順)이라 했던 최필제(1770~1801) 베드로는 일찍이 길거리에서 열정에 북받쳐 “주님을 믿어야한다”라고 외치던 순교자 최필공의 사촌동생이다. 의원 집안에서 태어나 약국을 경영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며 살았는데 효성이 지극하고 진실하며 후덕한 성품을 지녀 사람들 사이에 어진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약제를 다루어 약값이 싸고 질이 좋아 모두 그를 더욱 신임하였다. 그의 진실하고 충직하며 중후한 성품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서 바라보기만 하여도 그가 어진 사람임을 알아 볼 수 있었다.

그의 사촌형 최필공도 최필제를 언제나 존중하고 두려워했다. 나이가 어린 아우뻘이지만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하여 행하고 한 가지도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의 집안에 항상 천주교를 열렬히 배척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천주교 신자들을 돌아가며 욕했다. 그러나 이

러한 그도 그의 사촌인 최필제에 대해서만은 감히 흠잡아 말하지 못했다. 오히려 최필제의 자를 부르며 ‘천주교에서 취할만한 사람은 오직 자순 한 사람뿐이다.’라고 칭찬하였다.

최필제는 1790년 내포의 사도라 불리던 이존창의 전교로 입교하여 최필공과 함께 활약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 일어난 신해박해 때에 사촌형과 함께 체포를 당하였는데 그는 최필공만큼 신앙이 굳지 못하여 박해자들에게 굴복하고 그만 배교하여 풀려난 적이 있다. 그는 석방된 뒤에도 거짓으로 최필공의 자백서를 써서 관아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는 신해박해 이후 비참한 상태에서도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눈물겹게 사제영입 운동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차츰 자신의 불성실을 뉘우치기 시작했다. 1793년경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온 그는 옛 동지들의 외롭고 힘겨운 활동에 동참했고 주문모 신부가 입국해 사목활동을 펼 때 정약종, 황사영 등과 함께 더 할 수 없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늙은 아버지는 이미 한번 옥고를 치른 아들이 천주교에 다시 열종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걱정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천주교로부터 떼어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최필제는 아버지의 만류가 있을 때가 가장 괴롭고 힘들었다.

그는 지극히 공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천주공경이 참 되고 올바름을 간절히 설명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청하기까지 했다. 한 번 배교를 뉘우치며 새 삶을 시작한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혈육의 탄압을 놀라운 슬기와 의지로 이겨내며 자신의 굳은 신앙의지를 힘 있게 느끼게 하였다. 그는 가족의 탄압을 오히려 굳고 심원한 신심을 공고히 하게하는 계기로 삼고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가족에게 성실하여 참 사랑의 계율을 아름답게 실천해 갔다.

그러던 중 신유박해의 기운이 돌고 그의 사촌 형이 잡혀간 이틀 뒤 주님봉헌대축일을 맞아 이른 새벽 자신의 집에서 신입교우들과 모임을 갖던 중인 1800년 12월 19일(음력) 체포되어 형조의 옥에 갇혔다. 그는 옥중에서 배교를 강요당하고 형벌을 받았지만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동료들 고발하라는 어떤 유혹과 위협에 오직 침묵하며 의연히 오히려 관리들을 감복하게 하였다.

그는 옥중에서 그의 종형이며 신앙의 동지인 최필공을 만나 함께 옥고를 치르며 격려하다가 최필공이 먼저 정약종 등과 함께 순교하자 그도 순교에 대한 열망을 더욱 굳혀갔다.

그때 늙으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옥고를 치르게 되자 너무 상심하여 병석에 누웠다가 세상을 떠

났다. 옥중에서 아버지의 부음을 들은 최필제는 지극한 효성으로 애통해하며 관원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일시 귀가를 청했다. 당시 조선의 형법에는 이를 허가하게 되어 있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일시 귀가하여 상주로서 의무를 행하게 했었다. 허락을 해준 관리는 그 인품에 감복하여 이번 기회에 상례를 마치고 멀리 도망쳐 생명을 구하라고 넌지시 일러 주었다. 그러나 최필제는 정한 날짜에 돌아왔다. 지극한 정성으로 상례를 마치고 정한 날짜를 어기지 않으려고 무한히 애쓰며 돌아와 국법을 준수하여 공적 신의를 지켰다.

그는 아버지가 대세를 받고 돌아가셨음을 기뻐하며 돌아오기에 앞서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순교의 원의를 나타냈다. “나는 마귀에게 원수를 갚고, 전에 내가 배교했던 일을 보속하려 하네.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 하기 위해 내 머리를 바치는 것일세.”

최필제 베드로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차례로 문초와 형벌을 받고 신앙을 굽히지 않아 사형판결을 받았다. 그는 정철상 등 5명의 교우들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여 자신을 주께 바쳤다. 그때가 1801년 5월 14일(음력 4월 2일)로 그의 나이 31살이었다.

알 림

»사목국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을 수료한 분들은
‘함께하는 여정’ 교리반 봉사자로 활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본당을 통하여 신청하신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 교구 공문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참가비 : 1인 40,000원(교재비 별도)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문 의 : 055) 249-7021~3

일 시 : 2010년 7월 8일, 15일, 22일
8월 12일, 19일, 26일
총 6주 과정

장 소 : 교구청 4층 회의실